

'미향·예향 도시 광주' 백년가게 1곳 뿐

중기부, 전남 4곳 추가 선정에 광주·전남 총 12곳 인증
30년 이상 영업 활동 증명 서류 갖추는 등 조건 까다로워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전통을 이을 '백년가게'에 전남 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백년가게는 광주 1곳, 전남 11곳이 됐다.

하지만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예향(藝鄕)·미향(味鄕)을 자랑하는 광주에 '백년가게'가 왜 한 곳 뿐일까? 이는 백년가게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30년 이상 영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성장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백년가게 육성사업' 올해 2차 사업에 전남지역 4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광양 대한식당과 함평 전주식당(음식업), 장흥 예뻐제과와 강진 호남종묘사(도소매업)다.

앞서 지난 4월 1차 때는 나주 신흥장어와 여수 구백식당(음식업), 영광 삼성굴비(도소매업) 3곳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광주 민들레·순천 품미통닭·무안 금메달(음식업)과 영광 옥수굴비·순천 경덕농수산(도소

매업) 등 5곳이 백년가게 인증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7곳, 도소매업 5곳이고, 지역별로는 광주가 1곳, 전남이 11곳이다.

광주지역이 유독 적은 것과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홍보가 부족한 데다, 인증 사업이다보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 등 증명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광양 '대한식당'은 수년에 걸쳐 자체 양념비법을 개발해 차별화된 광양식 불고기를 제공하고 있는 광양식 불고기 전문점이다. "음식은 나눔의 배려이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경영철학을 머느리가 계승해 2대째 37년간 운영하고 있다.

■ 광주·전남 백년가게 현황

지역	업체명	주요 사업	업력
광주	서구 민들레	한정식	33
	나주시 신흥장어	장어요리	55
	여수시 구백식당	생선요리	34
	광양시 대한식당	광양식 불고기	37
전남	함평군 전주식당	생고기 비빔밥	42
	무안군 금메달	홍어	32
	순천시 품미통닭	마늘통닭	34
	순천시 경덕농수산	농수산물가공	34
	영광군 옥수굴비	굴비 도소매	39
	영광군 삼성굴비	굴비 도소매	35
	장흥군 예뻐제과	신발 도소매	31
	강진군 호남종묘사	농약 도소매	35

함평 '전주식당'은 41년 전통을 지닌 생고기 비빔밥집으로, 2대째 맛과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유명 맛집이다. '당일 매일, 당일 판매' 원칙으로 특유의 양념장과 육수, 국산 고춧가루와 숙성 젓갈로 직접 담근 김치, 한방 약재를 넣어 삶은 '돈뺀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진 '호남종묘사'는 농업용품 관련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농약 소매점이다. 특히, 35년 노하우로 돌발성 병해충 관리와 추적 관리로 차별화했다.

장흥 '예뻐제과'는 수제화 전문 업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브랜드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업력 31년의 구두 소매점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품은 전량 폐기하는 등 브랜드 관리에 철저하다.

중기부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백년가게'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를 높이고 웹사이트·한국관광공사·언론매체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홍보해 매출 향상을 돕는다.

또 30년을 넘어 백년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신문 보증재단은 보증을 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 고정)하고, 정책자금 금리도 0.4%포인트 우대한다.

백년가게는 '백년가게' 홈페이지(<http://100year.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가게' 선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희준 기자 jwpark@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日제품 불매운동 창업에 미치는 영향

"요즘 사회 분위기가 일본제품 불매에다가 일본여행을 가지도 못하는 운동이 한창인데요. 일본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며칠 전에 만난 예비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대법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징용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저열한 정치보복성 수출규제에 나 역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기탱천해 열심히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던 터였기에 느낀 당혹감이었다.

아마도 외식업이든, 판매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본 관련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던 예비창업자들에게는 현재의 엄중한 반일상황이 과연 창업을 예정대로 추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한동안 광망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업아이템 자체를 일본과 무관한 다른 아이템으로 대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관망한 이후에 다시 고민해보길 바라고 사급히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창업아이템의 대체를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여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단순히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에 여행 안가기 운동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자리해 일본 관련 창업아이템들 역시 외면과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문화가 배척을 당하는데 왜 일본 관련 창업아이템들이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높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주고 싶다. 창업은 경제라는 무늬의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문화라는 내용물이기 때문이라고....

일본은 이미 반한과 혐한의 정서가 일부 극우세력과 보수 언론 및 방송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좀 됐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정서는 반일이라고 보다는 얕은 수준의 정서적 반감 정도에서 멈춰있었고 그조차도 실생활에서 반일에 대한 행동적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기해왜란이라 불리는 아베의 대한민국 주권과 경제에 대한 침략적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반일을 넘어서 일부분은 혐일의 감정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관련 창업아이템으로의 창업은 빠른 폐업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기우일까?

물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단순히 일본 관련 창업아이템일 뿐 일본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창업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일본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해도 전반적인 국민정서가 높은 수준의 반일이나 혐일로 굳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매출의 타격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기피하는 반한 감정과 그로 인한 우리의 불쾌한 자존감을 도외시 한 채 너무 무분별하게 일본 문화를 창업이라는 형태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게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들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예비창업자들도 더 이상 돈이 된다면 일본 관련 창업도 하고 보자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전개될 것을 감안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관련 업종의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 희망시 업종변경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 준비를 해두면 어떨까 싶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중기부, AI·미래차

'미래산업전략팀' 가동

2021년까지 전문 멘토단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1년까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을 가동한다.

중기부는 23일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전략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중점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하다.

전기·미래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다고 중기부 측은 보고 있다.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멘토단 150명이 기업에게 상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대수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 개막
스타트업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아마존과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200개 업체의 협력·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넥스트라이즈 2019' 행사가 열린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창업, 참신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8월 16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다음 달 16일까지 '2019년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자본으로도 창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현재 국내 사업화는 미비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 등 2개이다.

응모작들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소상공인 창업 적합성, 사업모델 전파 및 사업모델 가치

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대상 1명(250만원), 최우수상 2명(각 2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 등 총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된다. 대상 1명과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해외 신사업 아이디어 탐방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